

世 界 的 原 子 力

1. 後退하는 美国, 核不拡散 政策

2. 美, 中共의 原子力發電所의 発注期待

<連 載>

世界의 原子力 (1)

後退하는 美國, 核 不擴散政策

- 各國의 反發로 中間路線으로

INFCE (國際核燃料 Cycle 評價)의 各委員會도 各國에서의 "테이타" 收集을 끝마치고 드디어 評價의 段階에 들어가기 始作했다. 參加 40 個國의 意見은 39 對 1로 美國의 孤立이 確實할것으로 보는 것이 大部分의 予想이지만 美國은 과연 어떤 対応을 보일것인지, 現實的인 妥協案을 찾아 낼수 있을지 여하한 論議의 中心은 再處理와 "프르토늄" 管理問題로 보는것이 틀림이 없을것이다. 「再處理延期政策」의 카-터政權에 있어서 問題의 優先度는 再處理委託 프로토늄 返還 - 輕水路리사이클 - 高速增殖爐라고 하는 時間的 順序가 된다. 그 最初의 「再處理委託」으로 美國은 一步 後退를 할수 없이 하게되어 있다. 美國의 希望은 英國과 仏蘭西가 受託契約의 調印을 延期하는 일 이 었지만 兩國모두 拒否의 態度는 굳어있고 9 月末에 런던에서 열렸던 美國과 英國의 原子力産業會議 共同主催의 「核燃料 Cycle 會議」에서도 英國代表인 하-만 이 그立場을 再確認 하고있다. 「하-만」의 意見은 우라늄이 石油以上으로 「政治商品」인 現狀에서는 그 供給不安을 緩和하는 措置와함께 再處理와 增殖爐의 利用을 正當하게 行使할 수 있는 技術的 制度的

政治的 條件을 갖추어야 한다. 또 英國은 1950年代 처음으로
 最初의 原子力發展 計劃에부터 "濃縮우라늄" 과 "프르토늄" 의 利
 用을 생각하였고 그後 20年間 一貫된 政策임을 強調하고 西獨代
 表와 함께 「전부 새로운 System을 생각하는것 보다 지금의 技
 術을 改善하는편이 有裨하다」라는 現實論을 展開하고 있다. 여기
 에 對해서 美國原子力 規制委員會(NRC)의 V. 기린스키는 美國
 이 디래머에 처해 있는것을 認定하고 核不拡散法의 規定(케이스
 바이케이스의 承認)에 따라서 再處理 委託을 爲해서의 輸送을 拒
 否하느냐, 美國의 不拡散政策의 敗北를 認定하느냐, 그렇지 않으
 면 使用이 이미 끝난 燃料의 輸送을 어떤 경우에는 認定하지만, 抽
 出프로토늄의 返還에는 嚴한 條件을 取한다는 中間路綫을 攄하느냐,
 그 세가지 方法 中 하나의 選擇을 取하여야 한다는 強要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있다. 最近의 情報은 美國이 이중 第3 路綫 中間
 路綫을 取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再處理契約調印 이라고하는
 英國과 仏蘭西의 強한 態度가 美國의 主張을 억제 「프로토늄 返
 還을 要求하는 強力한 商業的 壓力이 있을것이다」라는 "기린스키"
 의 우려表明에 거기까지는 介入할수 없는 美國의 "失望"의 진동
 을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런던會議에서는 「活潑한 濃縮
 競争市場의 成長」이 또하나의 하이라이트였다. 特히 仏蘭西의
 유-로데이프 計劃이 順調롭고 第一먼저 가스케트는 來년에는 빨리
 生産을 開始, 81年度에 万5百t의 SWU工場의 完成을 目標하고
 있다. 世界의 濃縮能力은 분명히 過剩途上에 있지만 仏蘭西가 計

劃을 멈추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各國에서 出資를 받아드려서 供給을 保證하고 있는 유-로테이프와 어려운 核不拡散條件을 仰制하려고 하는 美國과의 差 仏蘭西는 여기에 自信을 가지고 市場의 有利한 展開를 똑똑히 알고있는것 같이 보인다. 美國代表가 濃縮契約의 條件을 새로이 緩和할 수 있다고 表明한 것은 濃縮의 競争市場化에 밀려있는 美國의 立場을 엿볼수 있다. 會議에 招待된 에크란드 IAEA事務總長의 發言도 主目を 끌었다. 事務總長은 非同盟諸國 77個國의 立場을 代表하여 美國의 政策과 런던供給國會議의 가이드 라인(輸出制限)에 모든國家가 敵意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特히 供給契約을 一方的으로 變更하는 國家에 對해서 NPT(核拡散防止 條約) 違反國에 對하는 것과 똑같은 措置를 부과하여야만 한다는 開發途上國의 要求를 紹介했던것은 그대로 美國에의 痛烈한 批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世 界 的 原 子 力 (2)

美, 中共의 原子力發電 發注에 期待

닉슨 前大統領이 1972年에 中共을 訪問以後 美國과 中共의 關係는 날이갈수록 親密度가 더해 오다가 드디어 昨年12月5日에 카터大統領이 美國과 中共의 歷史的인 外交關係 樹立으로 發展했다. 美, 中共 사이에는 30年間の 空白이 있었지만 予想以上の 스피드로 兩國間은 緊密化 하고있다. 大統領은 「台灣을 中共의 一部로 보지 않고 若干의 武器供給을 계속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台灣이 앞으로 어떠한 行動으로 나오느냐 또 中共에 台灣을 上回하는 原子力計劃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美國業界에 있어서는 中共의 에너지 政策에 興味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台灣이 이미 發注한 原發을 cancel 하지는 않을까 등의 우려가 오가고 있다. 三者的 움직임을 보면 外交關係樹立이 發表된 約 一個月前에는 슈렌자 에너지省 (DOE) 長官을 團長으로 하는 에너지 代表團 31名이 中共을 訪問, 슈렌자 長官은 數10億 달러에 該當하는 에너지 關連 하드웨어와 技術輸出의 可視를 선물하고 歸國하는 등 中共의 近代化에 協力하는 方向으로 具體的인 움직임이 보이기 始作했다. 슈-렌자長官은 北京의 記者會見에서 「中共은 近代化를 目標로 삼고있고 에너지 開發은 그 目標達成의 必要條件을 具備하고있다.

美, 中共의 協議事項의 主要點은 ①石炭增産 ②水力發電所의 開發 ③資源의 再利用 ④太陽파이오마스, 風力, 波力의 研究

⑤高 에너지 物理, 核物理学, 核融合, 以上の 分野에서의 協力이나 研究를 하는일을 協議 했다고 하지만 一部에서는 今世紀中에 90 KW級 原發 10基前後를 美国에서 講入한다는 予定도 나와 있고 80年頃까지 自由主義圈에서 10基前後의 發注 可能性밖에 보이지 않아 美国의 原子炉 메이카로서는 기쁜 誤算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台灣에서 建設中の "구오쇄" 原子力發電所 1.2号機(BWR 98万5千kw)나 웨스팅하우스社에 發注한 5.6番 號의 原發(PWR, 95万1千kw)의 行方에 念慮가 생기는 일 등 질박한 疑問으로 産子力業業界에서는 「①國際的 借款의 經驗이 없는 中共이 에너지 開發協力の 보증이나 담보로 어떤 形態로 支拂을 하느냐 ②美国産業界는 台灣과의 契約이 Cancel 되지않고 中共에서도 受注할 수 있느냐, ③美国이 中共과 台灣에 있어서 商業活動을 하는것을 中共이 默認한다 해도 台灣側이 美国과의 通商을 抑制 혹은 報復的 行動을 보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点에 疑問이 集中, 政府쪽에서는 台灣에서 美国이 濃縮한 우라늄을 法律上 앞으로도 規制하여 갈수있는가를 指摘하고 있다.

슈렌자 DOE 長官과의 協議에서는 原子力發電所의 이야기는 나온 것 같지 않은것 같으나 「原子力の 平和利用開發은 꽤 늦어있었다」하는 정도의 말에서 原發의 必要性을 重視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見解도 있는것 같지만 최근 2.3年の 中共의 原發에 對한 움직임은 活發하여 1976년에는 오스트리아에 우라늄 輸入에

關한 使節團을 보낸것을 비롯, 西獨, 伊太利, 仏蘭西에 輕水炉購入
調査團을 보내는 등 昨年의 人民大會에서 定해진 近代化를 達成하
기 爲한 原動力의 하나로서의 原發의 導入에도 積極的으로 움직이
고 있는것 같다.